

질병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좃으니라”(8:1)

5장에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로 시작하는 그 위대한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좃으니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행동을 친히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사야 35장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에는 만물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를 둘러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거룩한 의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람들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던 때의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선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더 알지 못하고 혼돈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여 타락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중심으로 온갖 죄악으로 부패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며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뜻과 힘대로 살겠다는 인간들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아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8:2)

한 문둥병자가 나아와 예수님께 절하였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서 끔찍스럽게도 혐오받던 질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이 문둥병자는 사회에서 추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문둥병자는 길에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문둥병자로부터 바람부는 쪽에 있으면 그 문둥병자는 약 90미터 떨어진 곳에서 “나는 부정하다”고 외쳐야 했으며, 바람 부는 반대쪽에서는 약 45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그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나아와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8:3)

주목할 사실은 당시에 문둥병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위법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손을 댄 사람은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체를 만진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사람들은 몸을 씻는 정결예식을 통해서만 깨끗하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하신 행동은 율법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 비난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질 경우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댄 순간 이미 그 사람은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니었습니다.

두번째는 문둥병자가 “원하시면”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라고 대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질병을 다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여기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곧 자기를 찢던 사단의 사자로 인해서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절히 구했으나 주님은 치료해 주시기를 원치 않으셨고 대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필요에 대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로우면서도 큰 믿음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에 대하여 믿음이 부족한 태도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이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었듯이 우리의 주된 관심 또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고치기 어려운 많은 질병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 삶을 맡겼다면, 그분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을 때에도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나만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럴 때에 내가 네게 지극히 큰 여러 계시들을 줄 것인즉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 네가 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너에게 상기시켜줄 육체의 약한 것을 너에게 주고 그로 인해 내가 존귀히 되고 영광받으려 하노라”고 하실지라도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감사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원하시면”이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뜻대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불치병인 문둥병의 치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문둥병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라고 시작되는 레위기 14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8:4)

레위기 14장을 통하여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지 살펴보십시오. 산 새 두 마리를 가져다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아 그 피를 받고 다른 한 마리는 이 죽은 새의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치유된 사람에게 일곱 번 뿌린 후 들에다 놓아주게 되어 있는데 이는 새로 얻은 자유와 새 생명을 상징하는 매우 의미깊고 아름다운 의식이라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위치한 가버나움은 후에 예수님의 본 동네로 불리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곳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8:5)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아와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처음 만나 도움을 준 사람은 문둥병자로서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였고, 두번째로 도움을 준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언약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 백부장은 예수께 나아와 간구했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다.”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권위를 이해한 자였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8:9)

이 사람은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자기 수하에도 사람들을 두고 있었으므로 권위에는 명령계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든지 자신이 누군가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남의 수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설사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나는 누군가 나보다 더 큰 분의 권세 아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독재자의 출현을 가져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권위, 즉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권위 아래 있지 않는 자는 사람을 다스릴 수 없으며 권위의 원칙들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백부장은 권위의 원칙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만 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좃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8: 10)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런 역사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8:11)

여기서 동과 서는 이방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이방인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반면에 유대인을 의미하는 아브라함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삶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삶이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온지라”(8:12-13)

예수님의 다음 기적은 당시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철저하게 차별당했던 한 여성에게 행하셨습니다. 당시에 여인이 임신하여 해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대한 축하연을 벌이기 위해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산파가 나와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모두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성대하게 벌였습니다. 그러나 ‘딸입니다’라고 하면 모두 혀를 차면서 갖고 온 것들을 꾸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맨 먼저는 문둥병자를, 두번째는 이방인을 도와주셨던 예수님은 세번째로 멸시받던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천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8:14-15)

병고침을 받은 후에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8:16-17)

이사야 53장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 53:5). 오늘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영적인 치유에만 적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구약 주석인 신약성경에서 마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묘사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다 고치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마태는 이사야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하신 것이 영적인 치유는 물론 육체적인 치유도 포함하는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언제 이 떡처럼 부썩진 적이 있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유대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안식일에 시체가 나무 위에 달려 있지 않도록 뼈를 부러뜨려 빨리 사망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십자가에 다가갔던 병사들은 예수님이 이미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이하게 생각하며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에서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으리라’는 예언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에 쓰인 양은 뼈가 부러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희생양이신 예수님도 뼈를 부러뜨리지 않은 채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양쪽에 매달린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고 난 후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하다가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대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찢렸습니다. 옆구리를 찢을 때 피뿐만 아니라 물까지 흘린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을 확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39번의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규정된 수의 채찍질은 관례로서 죄수의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해 행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봅시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히브리 말로 백성들에게 자기가 어떤 경로로 주님의 종이 되었고 또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는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 때 ‘이방인’이라는 단어에 격분한 군중들이 소동을 벌이자 곁에 있던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왜 군중들이 바울을 향해 소동을 벌였는지를 심문하기 위해 바울을 채찍질하라는 명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때에는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내세워 채찍질을 면했지만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40에서 하나를 감한 때, 즉 39번의 때를 유대인에게 다섯 번이나 맞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의 유대법에 따르면 로마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재판 전에 이러한 벌을 내릴 수가 없었으나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러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죄인을 심문하던 방법 중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채찍 끝에 납을 달아서 만든 채찍으로 때리기 때문에 온 몸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때를 맞으시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에 채찍질로 인해 주님의 몸이 부서지고 속살이 드러나기까지 찢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사람이 제멋대로 저지른 일이 아니고 모두 다 예언되고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이사야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했으며 베드로는 이 말을 인용하여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성찬식을 그릇 행하여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든 것은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찬식에서 떼어진 떡 조각들이 진실로 무엇을 상징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고전 11:29-30).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주님이 받으신 채찍질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주님의 몸을 부숴뜨려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이 영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은혜를 영적인 면으로만 적용하려는 신학자나 목회자나 성도들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며, 영육간에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을 부분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쌌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좃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도다”(8:18-20)

본문에서 예수님은 충동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자에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따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겪게 될 어려움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8:21)

7장에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말과 행동이 부합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하면서도 주인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같이 모순된 경우는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운 것입니다. “주여”하면서도 “나로 먼저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뜻을 앞세우는 태도로서 중의 자세는 아닙니다.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는 것은 언뜻 듣기에는 매우 합당한 요구 같지만 이것은 하늘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좃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그 제자의 부친은 건강에 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일을 미루기 위한 핑계로 많이 쓰였던 관용구라고 합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기는 했지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지체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버리고 좃아야 합니다.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좃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8:23-24)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은 이번 뿐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변의 표고가 낮는데다 주위의 높은 산 사이의 계곡 때문에 기압의 교류가 생기면서 순식간에 강풍이 일어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잔잔한 때는 평온한 유리 같은 수면이었다가도 갑자기 강풍이 불면 파도가 약 3미터까지 높아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두려움 없이 평안하셨으며 본문에서도 풍랑중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8:25-27)

이 사건은 예수님이 모든 자연현상을 초월하여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진리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꾸짖으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호수 저편

게네사렛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으므로 가는 도중에 어떤 위험이 있어도 결국은 그 곳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8:28)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건에서 귀신 들린 자가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둘 중에 귀신 들린 정도가 더 심한 자만을 기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라고 했을 때 ‘귀신’이란 단어가 여러 귀신을 뜻하는 복수(devils)로 쓰인 것도 그런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게네사렛 지방의 유적을 발견하였습니다. 골란 고원에 이르는 도로를 건설하다가 발견한 이 지역은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높기 때문에 도로를 옆으로 내고 발굴한 결과 돼지떼들이 내리 달려서 물에 빠져 몰사한 그 비탈 언덕을 거의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8:29)

중요한 사실은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알아보고 인정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 예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떨면서 예수님께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은 자기의 때가 다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 즉 사단보다 큰 분이심을 알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단과 영적인 전투를 벌일 때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강하고 권세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귀신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때가 먹고 있는지라”(8:30)

당시 이스라엘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대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8:31-32)

돼지들이 내리달아 죽은 가파른 이 언덕은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게네사렛 시에서 몇 킬로미터 안 되는 곳에 있습니다. 주목할 사실은 사람을 귀신들게 하여 마음대로 주장하는 악한 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악한 영의 침입을 받으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빼앗기게 됩니다. 심지어 이 악한 마귀는 그가 점령한 사람의 입을 통해 자신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지 고대 문화권에서 성행하던 미신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런 종류의 사단의 행동들을 경험한 기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의 귀신 경험」(Demon Experience in Many Lands)이라는 책에는 전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겪었던 악한 영적 실체들에 대한 많은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 가운데 현대에 일어났던 가장 전형적인 예는 1947년 필리핀에서 테레사라는 소녀에게 일어났던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이 소녀가 발작을 일으켜 졸도한 후에 깨어났을 때, 온 몸에 이빨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소녀가 자신의 목 뒤와 등을 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소녀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 감옥에 이 소녀를 감금시킨 마닐라 시장은 그 당시 필리핀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들을 불러 이 소녀에게서 일어난 현상을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두 명의 선교사가 이 소녀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밥 맥칼리스터와 레스터 서머털이었습니다. 레스터 서머털은 「귀신에게 물어뜯기다」(Bitten by Demons)라는 제목으로 이 테레사라는 소녀에 대한 책을 냈는데, 라이프 잡지가 온 몸이 물어뜯긴 그 소녀의 모습을 사진으로 실어 자세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어쨌든 두 선교사의 노력으로 그 소녀는 귀신에게서 해방된 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8:33-34)

이 일이 전해지자 온 시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날 것을 간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의 딱한 사정보다 자신들의 이익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같이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임을 알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계산에 의해 오히려 주님을 떠납니다.